

2016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 묵상집 2016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2016년도 사순절 묵상집을 위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www.kcboston.org) 'Resources'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윤동주 시인이 지은 ‘쉽게 쓰여진 시’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작년으로 담임 목회 20년을 넘어 셧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수고 했다’ 칭찬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을 뒤돌아 보면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목회 시작하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전보다 설교가 쉽게 쓰여질 적이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작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 제 눈에 들어 왔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준비가 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동주 시인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이런 크고 작은 충격들을 체험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부끄러움의 충격을...

올해도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

십자가의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로 물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채워 주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는 매일의 걸음걸음마다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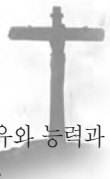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안지혜 교우

.....

기도: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평안을 느끼며, 주만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생명, 부활의 영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4)

지난 해 사순절 목장집에 기고를 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데, 다시 사순절 목장집 원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해에 비해 더 많은 체험과 고백의 순간이 되어 다가온 것 같네요.

사순절하면 어원이나 기원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설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는 크리스천이라면 갈망하는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삶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며, 그 삶을 지배하고 영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완벽한 삶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살고 싶다고 하여 한 숨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살기 싫다고 해서 임의로 호흡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동안만 호흡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저 삶이 주어지는 동안만.

가족 중 누군가를 잃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임종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과 본인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더 많이 함께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더 잘 해주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근한 예를 겪게 된 저 또한, 저를 비롯한 저와 관계된 삶에 대하여 지난 몇 달 동안 깊게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우리 가족 모두는 몇 년 만에 한국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집사람도 무척이나 고대하던 여행이었지요. 지정된 휴가 때문에 저는 가족보다 한 달이나 후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한 달 간 텅빈 집을 보며, 가족의 온기를 되뇌이면서, 함께 할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가는 날이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만남의 기쁨도 잠시,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집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시차도 적응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마치 꿈에서 덜 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머리를 세게 때리면 꿈에서 깨어나게 되듯이 말입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응급실의 대기시간이 빨리 끝나야만 그 꿈이 깰 것 같었지만, 담당의사는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빨리 병원에 왔기에 살아있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응급수술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간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아 건강을 스스로 자부하던 집사람이었기에 믿을 수도 없었지만, 멍한 상태여서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날 자정이 지나 수술 결정이 나고, 집사람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수술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는 동안, 웬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면서, 왜 하필 나일까, 그간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일까, 그 동안 잘 해 준 것도 없는데..., 아내가 없는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상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도가 떠오르지 않아 주기도문 만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 잡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는 미명 가운데, 내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아침이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집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음성이 이뤄질까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놀랍게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들었던 음성이 이뤄지리라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람은 헌금 위원으로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일예배 기도도 했습니다. 눈물이 변해 생명의 부활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때의 경험 때문인지 집사람은 믿음 생활에 있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에게 그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처럼.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한 사람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신 특별한 체험이며 고백이었습니다.

함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뿐 아니라,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님들을 포함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봉준 집사

.....

기도: 죽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살리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와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2015년 작년에는 우리 가정에 많은 기쁨과 축복이 함께 했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 1년 내내 마음 속 밑바닥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작은딸이 좋은 짝을 만나 5월의 신부가 되었고 큰딸은 결혼 4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되어 올 2월에는 우리 부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을 갖게 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내내 우리 가게 바로 옆 빌딩에 똑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오픈 한다는 소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시작 후부터 지금까지 오래 걸리고 있고 그곳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다가올 문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심하게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단 한가지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이런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였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방향과 변민에 썩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지요?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았던 주님, 고난이 깊은 때일수록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고난의 무게를 느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신미송 권사



기도: 연약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Even when it hurts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brews 13:8)

A major question that is asked by non-Christians is that why does He let bad things happen if there is God? I am not a pastor, or even a bible study teacher, but what God has shown to me in my few years of life is that through hardship, He lifts us up. God is not a genie. He does not give what we ask for; he gives us what we need.

Life is an endless storm and we're out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re will be times of fear, when it feels like everything is going wrong in our lives. It will make us question where God is and why doesn't He care enough to save us? There will be times that we curse against God and try to hurt Him because we don't understand. We simply cannot understand God's great glory, in the way that young children do not understand the basics of life.

However, in the times that it feels as if everything is failing, have faith that God is working through your life. Not just that, but He holds it in his loving, careful hands. As humans, the devil will use our sufferings to make us doubt our Lord and fall away from Him. But as children of God, he uses our sufferings to strengthen our faith, to mold us into His fol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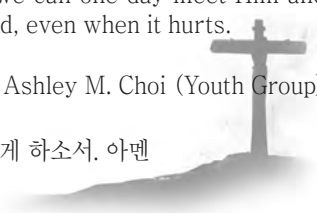
In Mark 4:40, “He (Jesus) said to them, ‘Why are you so afraid? Have you still no faith?’” In the midst of the storm, the disciples fearing for their lives, cried for help. Jesus then stood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Be still!’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39) Though the storm was great, and waves were breaking into the boat, so much that waves were already filling the boat, with one command Jesus shows His power and creates peace. When we call out to God, He will not leave us in the storm. He calms the waves and protects us.

When we enter a storm, we often forget that God was the one who puts us there. God knows our hearts; He's an infinite amount of steps ahead of us. We go through struggles and we automatically doubt God,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live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Matthew 6:30). When God sent Jesus to die on the cross for us, we were saved once and for all from death and pain. We don't need to worry about what will happen today, or tomorrow because God is always good, Jesus is always the same.

So when we experience times of testing, temptation and sufferings, we should instead praise God because He is gracious and righteous. He puts us through low times so that He can carry us out of the valley and onto the mountain top. He lets us struggle through this life so that we can one day meet Him and spend eternity with Him in heaven. Praise the Lord, even when it hurts.

..... Ashley M. Choi (Youth Group)

기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0-15)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려다만 보고는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마침 수도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의 기도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마친 수도사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만한 힘이 없소이다.” 그리고는 축복해주고 떠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가 지나가더니 그를 봅니다. 그에게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도 자기 길을 갑니다.

정치가와 법률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토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구덩이에 뛰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여 말합니다. “아니 뛰어 내리면 어떻게 해, 위에서 나를 구해 주어야지.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게 안 보여.”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구덩이를 너의 자리에서 보아야 해. 그래야 함께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지.”

교회사에 많은 모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수많은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채로 결코 우리를 구하실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덩이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고 끝내 죄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
<2015년 3월 1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 금식, 그리고 구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영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말지어다” (시편 103:2)

제가 어릴 적 자라난 곳은 50여 호가 사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산줄기 따라 세 동네로 나뉘어져 살았는데, 그중에 제가 자라난 곳은 가운데 위치한 송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10여 호 남짓한 초가지붕들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웅기웅기 모여 살던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또한 인심도 후한 그런 이웃들이 모여서 촌락을 이루며 살았는데 첫 번째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언덕 위에 초가지붕을 한 학의2리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친구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는데 유독 저희집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무슨 교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넉넉치 않은 농가 살림에 일손이 부족하여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못 가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여섯 명 있었으니 어린애도 봐주어야 하고, 농사철에는 부지깥이도 땀다는데 도와주는 일손도 없고 조부모님 모시고 8남매 기르시던 어머니의 수고를 가히 짐작도 못하던 어린 딸이었고, 12식구에 웬 손님들은 항상 어찌 그리 많이들 오시는지... 그때는 배가 고프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늘 북적대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새벽 4시면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옛날에는 시계가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 울리면 새벽 밥 지어 아들을 학교에 보내시던 어머님께서도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저는 이 미국에 1985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어린 삼 남매 데리고. 헤원이가 좀 크다고 늘 의논 상대가 되어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간다고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벌써 인생 70을 바라봅니다.

하곤 일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 여호와의 은총인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숙재 권사

.....

기도: 주님, 언제 어디서나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일에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마태복음 5:3)

저는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궁금증에 대하여 나름 해답을 찾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나님 나라(천국)와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천국)라면,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대목을 성경에서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할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마침 아침 일찍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퇴근할 무렵 오후 늦게에도 일할 사람을 구해, 똑 같은 금액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일꾼에게는 당연히 시간당 계산해서 적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면, 앞선 포도원 사건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 중 조금 못한 자식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서랍을 정리하다 아버지께서 적어 놓으신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장남이 자랑스러웠다고 칭찬하는 말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막내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열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사람만이 아닌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TV에서 한 “동물농장”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아파트 공사터 앞 개울가에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부화될 때까지, 공사터의 열악한 환경과, 밤마다 괴롭히는 도둑 고양이로부터 알을 끝까지 지키는 어미 오리 이야기였는데 이를 보면서 천국의 기쁨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뽕 먹고 알 먹고의 이야기”는 산불이 났는데, 알을 지키기 위한 어미뽕이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다 죽은 슬픈 사연이 들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다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술을 빚기 위한 사용되어지는 누룩, 그리고 새들의 보금자리와 나그네들의 쉼터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나무를 천국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고, 남의 자식도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천국을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의 아픔까지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려고 작은 몸부림을 치는 한 시인의 노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슬픈 고백” 시입니다. 일부만 소개 합니다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아도, 기도의 향불을 피워도,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어도,
2014년 4월16일 그날, 세월호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갈수록 큰 배로 떠올라, 우리 가슴 속 깊은 바다에 가라 앉질 못했네요.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화 집사



기도 :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픔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남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후회와 회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편 88:13)

새해에 한국에 있는 둘째 언니와 통화하는데, 노년에 들어선 언니가 말했다.
후회가 적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리고 회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나도 들으면서 동감을 했다.

그리고 다시금 회개와 회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깊은 명상과 함께 깊은 회개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보다 남을 탓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낙심할 때도 있다. 왜 또 같은?

왜 저럴까?

대신 “그렇 수도 있지”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함을 느낀다.
신문에서 읽었다. 매너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매너를 지킨다.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수록 말이 적어진다.
반작용도 좀 더 느려진다. 행동도 느려진다.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다.
느림보가 된다.
이것이 나 나름대로 가고 싶은 올해 삶의 방향이다.

고경진 집사

.....

기도: 주님, 더욱 더 깊은 뜨거운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깨지는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휘(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을 따
구 치달리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하박국 3:18-19)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신 적이 있다. 훌륭한 지휘자님이 연주하
시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보면 지휘하시는 동작이 크지 않다고 한다. 지휘봉을 크게 휘
젓지 않아도 단원들과 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연주곡을 만든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전문적
연주인이 아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지휘자님들은 지휘가
현란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신다. 차이점은 아마도 지
휘자와 단원 간의 이해의 일체감이 아닐까. 혹은 지휘자님을 믿고 그가 원하는 대로 연주
함으로써 완벽한 연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휘자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단원이라면 우리
는 어떻게 이 세상을 연주해야 할까? 요즘처럼 나라 안팎이 힘이 있는 자들의 세상처럼 공
의가 왜곡되고 정의가 실종된 때도 없는 것 같다. IS 이슬람 테러 단체는 그들의 신의 이름
으로 무자비한 살인 테러를 저지르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질병은 신약을 개발
해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답이 없는 “No 답” 시대에 하나님께 고
통을 호소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제 힘이 하나님
이라 여기는 죄인들도 마침내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며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며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계역사 속이나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한시도 지휘를 놓지 않고 있으며 그 때를 기다리라 하신 것 같다. 하
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들은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가 이
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 통치를 위해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에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다고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가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면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다.

아마 우리 세대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후, 다시 오
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일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직접 경영하시는 손
안에 있기에 실패가 아닌 완벽한 완성된 그때를 기다린다.

전신에 권사



기도: 이 사순절이 그 절묘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
을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건절히 소망하며
기뻐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얻은 파워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어느 누구에게든 물어봐도 근심걱정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우리집 꼬맹이도, 지금은 돌아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나의 유년 시절에도, 그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할 것만 같은 대학시절에도 근심걱정에 싸여 있었다. 그리고 내 작년 한 해도, 그리고 지금도 포닥이라는 불안정한 생활에, 연구의 걱정에도 근심걱정에 싸여 있다. 근심걱정은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해 주는 좋은 기능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갇아 먹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다.

최근 불었던 파워볼의 광풍, 1.5 빌리언달러를 얻으면 모든 근심걱정이 달아나 버릴 것 같아 너도 나도 허탈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알지만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이라도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나둘씩 사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워볼이 당첨되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 하다못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돈을 둘러싼 불화가 생길 것이고, 등등. 우리는 돈이 행복 자체를 가져다 주지 않는 걸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근심걱정이 없다면 어떨까? 내일에 대해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영유하는 삶은 어떨까?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일 거라고 추측해 본다.

새해를 시작하며, 펼쳐든 목상집의 한 말씀이다.

Cast all your anxiety to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이 말씀을 읽자마자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실행에 옮기신 그분이 계신다. 내가 가진 걱정,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내게나 참 큰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께 걱정을 맡기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구나하는 깨달음을 주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근심걱정 염려를 다 던져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믿으며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던져 드릴 때, 말씀 중의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특별히 머리속에 가득한 근심 걱정을 말끔히 씻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 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믿기만 하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얻은 파워볼이 아닌가. 근심 걱정 없이 해맑은 얼굴로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나즈막이 말해본다.

서정희 교우



.....

기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와 아뢰며 근심 걱정을 맡겨드립니다. 근심걱정 대신,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으로 기쁨에 가득찬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한복음 20:11)

10여 년 전 어느 가을날,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하는 노인 환자 한 명이 나를 찾아 왔다. 그는 휴대용 탱크를 통해 산소 공급을 받고 있었고 몇 발자국 안 움직이면서도 숨을 헐떡였다. Pulmonary Fibrosis란 병을 가진 그의 몸에는 죽음의 그늘이 짙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설 명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의 병세의 심각함에 놀려 경직돼 있던 내게 외려 그가 살면서 미소 지으며 물었다. “So...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신기하게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 당시 한의사 초년병이었던 내게 나의 스승들은 말기 환자들을 보내곤 했었고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살리려고 애 를 썼다. 그들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때의 기쁨이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폐병 환자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숨쉬기를 힘들 어 한다고... 그리고 몇 시간 후 나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한의사로서 처음 맞이하는 죽음의 소식. 대학 시절부터 양로원과 호스피스 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나는 이 미 죽음이라는 현상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환자의 죽음은 다르게 다가 왔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폐로 인해 헐떡이며 죽어 갔을 환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주 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보스톤 Jamaica Pond 윗쪽에 Ward’s Pond라는 작은 연못이 있다. 마음이 힘들 때 찾 곤 하는 연못이다. 평소에는 마음을 가라 앉히려 그곳에 가지만 그 날은 달랐다. 하늘을 향해 원망했다. “전능하시다는 분이 겨우 이렇게 밖에는 못 하시나요? 인간을 이렇게 연 약하게 만들어 고통받고 결국엔 죽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니까?” 그렇게 한참동안 분을 털어놓은 후 지쳐 잠시 앉아 있는데... 잔잔했던 연못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곧 신비 한 물결의 형태가 연이어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물결을 쓸어 만지는 듯했다. 나 도 모르게 신비한 자연의 모습에 취해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뭐지? 무엇을 들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낸 생각 인가? 그러나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내가 이 “water show” 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는 나의 본래 질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후에 생각해 보니 사실 그것이 답이었던만... 그때는 몰랐다. 오히려 이렇게 따졌다. “이건 제 질문과는 아무 상관 없 잠파요!” 여전히 수면에는 신비한 물결의 형태가 계속되었다. 다시 무엇인가가 마음 속 에 들려왔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느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지식은 너무도 작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이라 불리는 신비한 현상, 인생... 그리고 하나님. “너...이거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은 생로병사의 비합리적임을 원망하기에는 내겐 아무런 자격도 지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었다.

죽음이란 결코 끝이 아님을. 비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생명의 끝이 오더라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외워 왔던 사도신경의 끝부분, “...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의 진리가 살아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여러 환자의 죽음을 겪었다. 도울 수 없게 될 때 나는 작아진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농담을 한다. 나도 언젠가 갈 테니 곧 보자는 등,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 달라는 등...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더한다. “This is not the end.”

빈 무덤. 그것은 믿는 이들의 소망이요 또한 진리이다.

최정환 집사

.....

기도: 육의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6:14)

갈라디아 6:14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길게 설교 하셨다. 이 글은 그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선생들이 와서 할례와 옛 유대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가 상기시키고 있다. 첫째 삶이란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6:7-8)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될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육체로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심었는지에 따라서 이땅의 추수와 영원의 추수가 결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할 일은 어떤 것이 참된 멍새지인지를 찾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고 제 3일에 살아 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이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롬3:23-25)”

신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 십자가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이요 중심 주체이며 복된 소식 전부이다. 바울이 이것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말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분명한 한 인간이었다. 그분은 나사렛 목수이셨고 그 후에 설교가로 나섰다. 또 많은 기적도 행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주님이 오심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다. 아무리 도덕적인 성인 군자라도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속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쳐다 볼 수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구약성경에서 숫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53:6)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요3:16).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을 믿는 것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윤원길 장로

.....

기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좋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 복음 25:40)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주님, 참 많이 외롭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울며 기도했던 때가 있다.

어느 때와 같이 카페에 앉아 외롭고 울적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때, 한 노숙자가 들어와 자꾸 내게 묻는 것이었다.

“커피 좀 드시겠어요?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매 주 토요일 아침이면 ‘청년부 봉사’ 라는 명목 하에 Homeless Shelter에서 음식을 배식하던 내게 ‘노숙자’ 에 대한 이미지는 늘 ‘나보다 못한 자’, ‘내가 돕고 베풀어야 할 대상’ 이었다. 그런데 그러했던 대상이 내게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거절하던 내게, 그 분은 결국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게 내밀고는 아무 말 없이 카페 밖을 나가셨다.

그날 난, 그 커피 한 잔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그 분이 남기고 간 커피 한 잔은 주님이 한결 같이 내게 베풀고 계셨던 사랑이었다.

그 누구보다 고맙았던 나는, 내가 그간 받아온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내가 사랑 받아야 할 자인 것을 모른 채, 오로지 ‘내가 더 가진 자’ 라는 생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분이 어떤 이끌림으로 그 카페 안을 들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본인의 한끼 식사 비용일지 모르는 돈으로 내게 커피 한 잔을 베풀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나는 주님의 옷을 입은 한 분의 노숙자를 통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허름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토요일 아침이면 나는 조금 다른 미소로 쉼터의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난 그저, 내가 받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님의 모습을 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뿐이라고,

내가 더 귀하지도, 잘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내가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고.

배유미 교우(청년 2부)

.....
기도: 주님, 오늘도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하옵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바나바와 바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눅 21:33)

고향이 구브로이고 레위 가문의 바나바는 그 가정이 모두 예수교를 믿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 신도들을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지지했으며 옛날의 사울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다고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리고 다소에서 7, 8년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교회에서 흩어진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디옥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빙하여 같이 사역을 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함께 선교를 하는 동역자가 되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구브로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병든자, 불구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바나바는 말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신 (쓰스) 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겠다고하여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하는 사역만을 열심히 했으며 인기 문제나 시기심 같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구브로 전도에서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이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바울은 그런 사람과 같이 못 간다고 거절하여 바나바와 몹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헤어지고 제각기 전도여행을 함으로써 전도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을 바울사도답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바나바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불구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일 동안을 금식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순절기간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과 절제, 구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경 권사



.....
기도: 사람들의 무지로 인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What is Good?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some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The thought of death for else' s sake
Is not a job to contemplate,
Nor puzzles which to be frustrate,
But something to demonstrate.

We humans be so small towards death
And I' d be first to now confess:
That it' d be safe to second guess
The human life, the human death.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What is sane and what is mad?
Christ the only Son has said
“To love is to give life,” but had

He not done that, this question
Would not have had attention.

Thank the son, the beautiful one, who
Did that which we so rarely do.

안성민 교우 (Youth Group)

.....

기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지역에 회개와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Chicken Nugget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133:1)

매년 여름방학 중에는 Salt Lake City에 사는 딸네 식구가 약 3주간 우리집에 와서 지내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옆 동네 North Andover에 살고 집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두 집을 오가며 재미있게 여름방학을 보내지요.

지난 여름입니다. 저희 딸의 딸 Katie (2006년생)과 저희 아들의 첫째들 Nathan(2007년생)이 chicken nugget이 먹고 싶다고 하여 몇 개씩 애들에게 나눠 줬는데 ‘입이 짧은’ Katie는 제가 준 chicken nugget을 훌쩍 먹어치우고 더 먹고 싶은 듯 Nathan의 것을 보고 있으니까 ‘먹성 좋은’ Nathan이 “You can have this more!” 하며 선뜻 건넌 주는 것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두 애들이 잘 놀다가는 “It’s mine”, “It’s not” 하면서 서로 빼앗고 싸우고는 올면서 제 어미에게 달려가기 일쑤였는데……. 우리 딸의 첫째들 Matthew(2002년생)은 키가 5 feet 5 inch로 자라 이젠 의젓하게 두 동생을 끔찍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대견하네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옛말이 Matthew를 보면서 증명이 되는 듯 해요.

친형제건 사촌 형제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도 내 주장은 내려 놓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피로움과 기쁨을 더놓고 나누는 사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김계숙 권사

.....

기도: Chicken Nugget을 나누는 아이들처럼 빈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릿고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13)

지난 여름 사진 한장을 받았습니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던 친구가 보낸 겁니다. 밀레의 ‘만종’ 그림 사진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덧붙인 한마디에 아련했습니다. ‘이발소 그림’이라 했으니까요. 그 옛날 한국 동네이발소 벽에 걸려 있었지요. 무슨 연유인지 그림은 우리집에도 있었습니다. 액자에 버젓이 걸려 있어서, 눈에 띄 익숙한 것이었고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을 보고,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젊은 농부 부부가 일하다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 말입니다. 저녁 무렵일 테니 옅은 주황색과 검은 색 역광이 더욱 경건해 보이는데, 멀리 교회 건물과 집자기도 보입니다. 그림 속에선 감자 바구니도 놓여 있고요. 감자를 캐고 있던 모양입니다. 참, 부인이 쓴 모자는 수녀님들이 쓰던 것이 아니던가요. 이곳 보스턴에선 그다지 눈에 설지 않습니다. 남편은 작업복 차림이고요.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나는데, 감사기도를 올리는 건,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릴 적에 보던 그림과 지금의 느낌은 썩 다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바구니에는 원래 갖난 아이가 실려 있었다네요. 굶주림으로 죽어간 어린 아이였다는데, 너무 슬프니 그림을 고쳤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아이가 담긴 바구니였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네에게 있던 보릿고개를 떠올렸습니다. 한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춘궁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두어든 벼식량이 다 떨어져 갈 즈음 봄 근방일 겁니다. 이맘때 부활절 즈음이겠지요. 이른 보리를 심기는 심었는데, 이삭이 패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할 때인 겁니다.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 했다는군요. 고단하고 배고픈 시대였고, 힘든 고난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견뎌낸 겁니다.

힘겹게 넘던
그 보릿고개 시절엔
종달새도
더욱 슬피 울었더라지?
(오정방, 보릿고개 중에서)

목마르지 않고, 굶지 않고, 배 곡지 않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목말랐을 주님의 갈증을 느끼게 허락하시옵소서. 신 포도주로 입술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화옥 집사



기도: 이 시간 당신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밝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호세아 10:12)

저는 성격상 ‘공의’ 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justice’ 를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공의’ 는 ‘justice’ 가 아닌 ‘righteousness’ 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 고 인정받은 것을 ‘공의’ 라고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때의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부정할 부를 대물림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불의를 저질러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어서 ‘공의를 심으라’ 고 말씀하시고 계신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태어나 복음을 들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다님으로 아주 쉽게 ‘공의를 심은’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공의를 심었는데 우리는 왜 ‘인애’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애’ 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라고 한답니다. 신약의 ‘사랑’ 이라는 말은 결국 ‘헤세드’ 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인애’ 등으로 표현이 되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돌아가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둠의 삼 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랑과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공의를 심었는데 왜 인애를 거두지 못하여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받은 ‘옳다’ 하심으로 낫 놓고 있었기 때문이고, 제가 제 땅을, 제 밭을 기경해야 했는데 도대체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기경하고자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도대체 기경이, 팽이 하나가 땅에 박히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온갖 쓴뿌리로, 굼기도 굼고, 잘기도 잔 온갖 쓴뿌리들이 들어 뒤엉켜, 팽이는 커녕 늦은 비, 이른 비조차 스미지 못하게 또아리를 틀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2016년 1월 20일 밤늦게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월 10일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날 저는 저의 쓴뿌리들의 온갖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사순절 어느 페이지에 놓일지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때라도 저는 저의 많은 쓴뿌리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의 씨앗이 제 밭, 제 땅에 떨어져도, 그리고 ‘공의를 비’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유기적 관계)처럼 제게 ‘내시고’ 계시 때에도 한 방울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쓴뿌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세요. 자기 연민과 아집에 싸여 숨조차 쉬지 못하게 조여 오는 많은 쓴뿌리를 보지 못했고, 그것에 습관 들어 ‘내비뉘’ 라며 대면하지 않았 습니다. 그 쓴 뿌리들을 자르고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드는데 몸을 움직여 수고할 사람이 바로 저밖에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던 저 때문에 바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대면하면 이길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리고 계속 주실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어 드리고, 그래서 제 가정이, 제가 사는 동네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세상이 변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

김영순 집사

기도: 주님,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 없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중보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내 양을 알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1-15)

노부부가 필라델피아 작은 호텔에 유숙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방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호텔 종업원은 어쩔 수 없이 가여운 노부부에게 자기의 방을 사용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노부부는 감사히 받아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떠나면서 노부부는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호텔 주인이 될 사람이네요. 언젠가 내가 당신을 위해 호텔을 하나 지어드릴지도 몰라요.”

2년이 지났습니다. 종업원인 George Boldt 씨는 어느날 편지를 받습니다. 뉴욕행 왕복요였습니다. 종업원은 뉴욕을 방문하여 노부부를 찾아 갑니다. 노부부는 Fifth Ave.와 34가 코너로 종업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건물이 당신이 운영할 호텔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지었어요.” 그의 이름은 William Waldorf Astor이고 세계적인 Astoria 호텔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부부를 가엽게 여겼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호텔을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일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야릇한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 종업원이었는가. 천만명 중 한 명이 얻을까 말까하는 운이 튼 종업원이라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업원은 정말로 운이 좋은데 그것도 그 때니까 가능하지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은혜 중에 잘 지내는 분들은 Boldt씨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아주 깊은 진리를 쉬운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을 찾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도며 강도요, 또 하나는 목자입니다.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 갑니다. 반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신명기 28:6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면 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중략)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락날락하는 자들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
<2015년 3월 8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보스턴을 떠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지난 5년 간의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사무실 책상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나님께서서는 내 머릿속 계획보다, 내 마음 속 기도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라는 보스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오히려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세대 간의 벽 없이 친자식 같이 친동생 같이 대해 주셨던 고마운 교회의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분들의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이 서른이 넘으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힘들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생토록 마음 터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친구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 길이 막혀 있을 때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드린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학교 친구들과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에서 나는 우리의 어설피고 작은 기도 제목들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전공 논문을 정리하는데 신앙 서적과 교회 회의록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며, 광곽한 연구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고 싶으셨구나, 나를 지켜 주시고 계셨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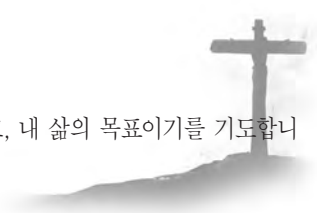
이제 새로운 도시로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보스턴에서 우리 부부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부부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그동안 함께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교제했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원미 집사

.....

기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목표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The heart to forgive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Matthew 6:12)

I have found that forgiving others is one of the toughest human actions, especially for me. Forgiveness requires you to truly free from blaming people who have hurt you or betrayed you in some sense. There can be no grudges or secret hatred. Forgiveness means letting go of negative emotions and getting past hurt and vengefulness to wholeheartedly wish an enemy well.

I have been meditating on forgiveness and how we have been instructed to forgive in the Bible in hopes of spurring a change of heart in me. I sought answers to questions we all ask: “Why should I forgive that person? Why do they deserve my forgiveness?” That’s when I came across a powerful yet simple answer, an answer we say every Sunday at church after worship: The Lord’s Prayer. Every Sunday, every youth group student rises and asks God to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Matthew 6:12). In Matthew 6, Jesus continues to speak: “For if you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Matthew 6:14-15).

When others betray, hurt, or disappoint us, we take it to heart. So often, we feel extreme hate and a need for revenge. We act as if we are innocent, only victims of others’ foolishness or mistakes. But so often we forget we are the very sinners, the culprits who again and again turn our backs on God. We profess our love for Him only to chase after false idols of this world. We say we dedicate our lives to Him only not to waver and to focus more on ourselves. We pull and push away God. We disappoint constantly.

But here in Matthew 6, we are reminded of how we have been forgiven, how our graceful and merciful God found it in His heart to love such broken and undeserving people. Although we should be His enemies, instead, He wants us to come to Him and be filled with love, joy, and all the good things He brings. How understated is God’s blessings that we cannot even recognize how lucky we are! We take for granted the regular forgiveness we receive on a daily basis. But what if He didn’t forgive us the next time we turned from His way? What if God, like we do, chose to not forgive us of our trespasses? What then?

So the real question is, how can I not forgive that person? When was I ever the judge of others? Who am I to withhold love from others around me when I know of God who loves me so? So this Lent, I will give up my own pride and misconceptions that block me from forgiving others. I will strive to love my enemies, recognizing the true love Jesus poured out to us. Forgiveness may be difficult, but it is not impossible. We know this because we stand living today. We know this because of the cross.

..... Angela Park (박지수) (Youth Group)

Prayer: Dear God, help me to forgive others as You forgive me. Amen.

일상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달리는 길의 나무와 하늘은 너무도 눈이 부시다. 아이를 학교에 내려 주고 돌아서 오는 길은 태양이 뒤에서 비춰 주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의 나무와 하늘을 내게 보여준다.

몇 년을 아침마다 가고 오는 같은 길ियो 하늘이지만 단 하루도 같은 빛깔과 모양은 없었다.

가슴 벅찰 정도로 아름다운 길을 가고 오며 시작되는 매일.. 바로 오늘이다. 매일매일의 ‘오늘!’

오늘을 또 주셨다, 감사하게 너무도 감사하게.. 이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이다.

어느 오늘은 마음이 몽클하고, 어느 오늘은 너무도 감사함에 눈물이 나고, 어느 오늘은 그분 앞의 한없이 작은 나를 만나고, 어느 오늘은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느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길과 하늘 속에서 딱딱해진 내 마음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분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마음을 편하게 아주 편하게 나의 아버지께 전해 본다.

“오늘도 저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어서 감사해요. 오늘은 하늘이 참 푸르네요. 잎이 예쁜 빨강이 되었네요.. 하얀 눈이 덮여서 눈이 더 부셔요.”

어마어마 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그 사랑의 기적을 너무도 많이 보여 주신 나의 하나님. 그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며 함께 해 주신다.

당연한 것들 속에서 느끼는 감사 그것은 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나는 일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을 시작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김향인 집사

.....

기도: 희망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8)

요즘 참사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접한다. 뉴욕의 911테러 참사때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온 가족이 희생된 Hanson Family (Peter, Sue, Christine) 의 장례예배 장면이 생각났다. Sue는 한인 1.5세로 남편과 딸과 함께 LA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러 가다가 참사를 당했다. 예배중 한 사람이 나와서 추도의 말을 했다. ‘I did not come here to say sorry, I came here to say thank you. I will not forget you, I will think you everyday...’ 그리고 장례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희생된 두 살 난 딸 Christine Hanson 의 Favorite Song ‘I love you, you love me. We are a happy family...’ 를 합창했다.

때로 우리는 큰 재난가운데 생명을 건진 이들이 간증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버림받아 죽은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건진 이의 간증은 잘못된 것인가? 이 양자사이엔 모순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 단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목숨을 건진 것은 복 받은 것이고, 죽은 것은 저주나 벌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산사람은 좋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죽은 사람은 나쁜 믿음과 하나님의 버림 때문이라고 확립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모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요, 모든 이가 가는 인생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또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기에 의견상 같은 결과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생애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또 의견상 다른 결과도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산 사람들이 산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처럼, 죽은 자의 죽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

산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결코 죽은 자의 죽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죽은 이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려 죽음 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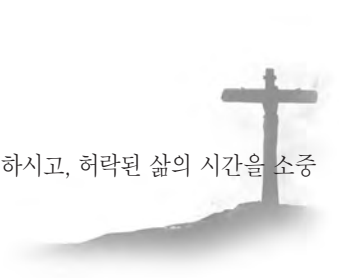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과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듯이 우리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다. 죽음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품과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 에서 죽음의 축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다. 우리 각자가 죽음을 통과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 볼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죽는 사람을 볼 때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들의 죽음이 짐이 아니라 선물임을 선포하게 된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목상하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간구한다.

박신영 장로

.....
기도: 죽음의 그림자에 놀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허락된 삶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케 하소서. 아멘



당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오늘은 수수께끼를 하나 내 보겠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매 주일에 보스톤한인교회 정문을 통과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입니다. 대략 350명? 450명?... 아닙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그 힌트는 십육 년도 더 전에 고 최인호 작가가 쓴 '상도'라는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아마도 제 4권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하루에 남대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였습니다. 정답은 두 명. 맞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이라고 답하니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 두 명의 성씨도 알고 있나?” 그러니까 다시 답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씨와 해씨입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남대문을 통과하여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씨,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해씨, 나에게 이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므로 셀 필요가 없으므로 하루에 남대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씨와 해씨 두 명입니다.” 이상이 제가 작년에 남선교회 총회 때 회원들과 같이 의미를 되새긴 부분입니다.

가끔씩 저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서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이럴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이렇게 하다 보니 불현듯 고 최인호씨의 소설 '상도'에 있는 그 수수께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은 무엇일까? 이가일까? 해가일까? 아니면 이가도 해가도 아닌 그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그런 크리스천일까? 아니면 이가의 딸을 쓴 해가일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이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해씨입니까? 아니면 이씨도 해씨도 아니고 그저 왔다 그저 갔다 하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이씨로 포장한 해씨입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저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바뀌어야 당신도 바뀌어 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운 '저'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보다 떳떳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규암 김약언 할아버지의 유언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김약언 할아버지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노력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정열 집사

.....
기도: 나의 기도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만남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뉴욕행 비행기 안 옆자리에 로체스터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유학생과 함께 앉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 학생이 “혹시, 얼마 전 밤늦은 시간에 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춘천행 막차를 기다리며 줄서 있을 때 내가 그 학생의 바로 앞에서 있었다고 했다.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춘천행 버스를 기다리며 앞뒤로 서 있던 학생을 뉴욕행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서 또 만나다니. 그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으며 머릿속에 맴돌며 목상을 하게 만들었다.

보스톤 한인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과의 만남, 주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목상하는 성경 공부팀과의 만남, 매달 모이는 구역식구들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부부의 만남,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 등이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며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남이며 그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런 생각없이 만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느라 채찍에 맞으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피 흘리시어 우리 죄를 씻어 주사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하루하루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한문수 집사

.....

기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13)

김구 선생이 하루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일도 알지 못하는데 너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처음에 마음먹은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적했던 곳에 이를 것이다.”

조만식 선생과 김구 선생이 한국인을 위한 사표가 된 이유를 알듯합니다. 처음 가슴에 품은 뜻을 주위 환경으로 인해 포기하는 많은 사람을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슴에 품은 뜻을 굽히지 않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뛰는 심장소리를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 놓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늘 세계 구원을 향한 심장의 강한 박동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도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는 제사장들도 권력을 앞장세운 빌라도도 아니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소리는 로마군병들의 창에 찔림을 당할 때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창에 찔림을 받는 순간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와 절제와 구제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절제와 구제를 하는 이유는 참 자신의 심장 소리를 강렬하게 듣기 하기 위함입니다. 규례와 규범과 관습으로 인한 두려움의 심장소리는 사라지고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참 자신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중략)

교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옥함의 여인처럼 참 자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장소리를 새로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깊어가는 고난을 체험하며 아울러 참 자신을 찾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응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영길 담임 목사
<2015년 3월 15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나, 낮아지신 예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11-12)

2015년 늦은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저녁을 먹고, 평소에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지만, 급하게 회사일을 처리할 것이 있어서 컴퓨터를 켜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얼굴을 하며 달려와, 제 컴퓨터 스크린에 있던 한 비행기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아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게 뭐해요? 이 비행기는 뭐예요? 아빠가 이거 만든 거예요?” 등등...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응, 아빠가 하는 일 인데, 아빠는 비행기를 만들진 않고,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 진짜 멋있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다 보니, 아이들은 그새 흥미가 떨어졌는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러니 하고 남은 일을 마무리한 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도와주고 거실에 나와서 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이들과 한 대화가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화 내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치 혼자서 비행기 엔진을 다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자랑한 “허세”가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담당 개발자, 볼트와 너트부터 시작해 엔진의 각 부품을 만드는 공급 업체들, 엔진을 조립하고 테스트 하는 부서등... 정말 많은 사람과 매일 교류하며,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다고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제 자신을 높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면, 내가 속상하다는 핑계로 화를 참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아내의 단점만을 보고, 제 마음이 상한 것만 생각하며 짜증을 부렸던 때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은 읽는 등 마는 등 대중 눈으로만 보았고,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끝나기가 일쑤였으며, 과거의 좋았던 기억만을 추억하면서 왜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불평불만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하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불신과, 답답함으로 가득찼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저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저의 죄인 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주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 하나 기억하여 보았습니다. 아내, 아이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목사님들... 그 분들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음에, 그리고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전달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먼저 무릎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 매 순간 새롭게 나타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낮은 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섬기셨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민호 집사

.....

기도: 사순절 기간동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강박한 저의 마음에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To Be A Child Of God

“Therefore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Matthew 6:25-33)

For some reason, during the summer of 2015, I started collecting plants. I had a passion for taking care of them and soon enough, my whole room was filled with plants that went around the rims of my windows. I didn't think too much about my new hobby. However, after few months have passed, God spoke to me in an interesting way. As I was staring at my plants nonchalantly with a blank mind, I realized how beautiful plants are not only because of their outer appearance but also because of how dependent they are. Plants could be argued to be the best example of Christians; they never know when they are going to receive sunlight, water, soil, etc. Yet, they are not capable of worrying about their surroundings. And the only thing they can do is lean on God, the one and only who IS capable of providing all their needs.

Similarly, we need to do the same. As weird as it is to compare humans to plants, if there is one thing we can learn from plants, it is that we need to tru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give everything to God and trust that He is good. We need to be able to trust that God will provide food, water, shelter, and everything else we may need and not worry on our own. We need to believe that we cannot do anything with our own strength and is it only through genuine prayer and belief where God will provide for us.

God is so beyond our capability of understanding and His ways of reaching to us are unfathomable. Who would have thought that God would use plants to truly help me understand something I couldn't understand on my own for the past 14 years. And this incredible, powerful, amazing God is the God we believe in. He can do anything and He will because He loves us so much to the point where He would send His only son to die for us. If this is the God you believe in, pray to Him and ask Him for the Holy Spirit so that you can give up all your worldly possessions and genuinely depend on your best friend, God.

Lucy Kim 김효경 (Youth Group)



Prayer: Father, You are wonderful, almighty, and always good. Help us to understand and You more and for us to be able to give up our lives for You. Amen.

나의 산책로 숲속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작은 회오리 바람에 이리저리 쫓기며
내 발 앞으로 돌아간다. 아마도 겨울이 오려나 보다
쫓기는 낙엽따라 멈추는 곳에 내 발길도 멈춘다
보잘것 없는 낙엽이란 단어 하나도
심금을 울리는 시인들의 감동어린 표현을 넘어
누구나 한 번쯤 낙엽무덤을 만들며
한편의 시를 써 보았으리라

오늘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낙엽이 주는 감동
한아름 두아름 굵어모아 무덤이 끝날무렵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은 무슨 사연이고
손끝을 타고 오는 속삭임 가슴에 울려 퍼진다

지난 여름 그렇게 도 무성하게 풍요로웠던 내 모습이
어느새 그렇게 애처로워 보이느냐고 묻고 있음을 알았는지
참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들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떨어진 게 아니라
날씨가 차가워지면서서 형제들끼리 뜻을 모아
폭풍치는 날 살아남기 위해
낙엽되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먼저 내려와 있던 형들은 썩어서 영양을 공급하며
어머니의 뿌리를 이렇게 포용하고 있으면
눈이 와도 얼음이 얼어도 거뜰히 살아서
새날이 오면 많은 동생들을
잉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으로 감동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네 모습이 진주보다 귀하고
꽃보다 아름답구나
죽자고 살고자 하는 나보다 귀한 너로다

주정대 집사



.....

기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 (시119: 105)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보다 더 단 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23:10)

처음 드리던 가정예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던 시절, 처음 미국 땅으로 유학을 와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장모님의 제안 (또는 강요)로 드리기 시작한 가정예배.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저에게, 집에서 평일에 그것도 매일 드리는 예배라니...! 식탁에 둘러앉아 찬양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기도를 할 줄 몰라 더듬거리고 낮 뜨거워 불편해 하던 그때에, 장모님께서 사위는 초신자이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시는 것처럼 정말 세세하고 심지어 유치했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들어주시며 저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보스턴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무탈했던 저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연구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가 계획하고 소망하던 일들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여 가고 좌절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그 무렵, 속해 있던 부부청년부에서 찬양팀 인도자로 섬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아주 잠시 동안 기타 한 번 배워본 것이 전부이고, 악보 보는 법도 모르고 찬양곡도 잘 모르는, 음악에는 문외한인 저에게 찬양팀으로 섬겨 달라니... 게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신 것인지 결국에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만큼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찬양곡만 모아서 간단하게 찬양 시간을 채우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마음이 가득했던 저에게 찬양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찬양팀을 섬겨 주시기 시작하면서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찬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기쁨과 은혜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불가능하거나 저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자리를 제가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어려운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란 아이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작은 믿음을 보여 드리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노현철 집사

.....

기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폭풍 같이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 26-27)

유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랍비에게 머리 둘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랍비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비명을 지른다면 이는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소 잔인한 방법이긴 하나 아픔을 함께 하는 것만큼 한 몸임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면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애당초 몸의 일부가 아니거나 또는 병든 상태일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흔히 불리우는 한센병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균은 우리 몸의 신경에 침투하여 우리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반복적인 상처를 피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신체 끝 부분, 즉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곳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눈이 아프지 않아 눈이 건조하게 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론 내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픔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으로부터 저 멀리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이름 모를 신자의 아픔까지, 그것들을 매일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우아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나의 둔감함 때문에 누군가는 대책 없이 반복적인 상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누고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에 대한 자조적인 입장일 뿐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어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도 그곳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말입니다.

이재익 집사

.....
기도: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리아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아멘



Even Homer Sometimes nods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16:24)

2016년, 새해 벽두에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휴식할 수 있는 삼 일 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벽난로 안에서 뜨겁게 타고르며 갈라지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올 해가 원승이 띠의 해라서 그런지 “원승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천리일실: It means that there are chances for even perfect and great people to commit mistakes)” 라는 그 유명한 속담이 언뜻 떠올랐다.

예전에 누군가의 말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라고 했다. 1.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2.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3. “내가 거기 있어서”이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듣고 흘려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은가 말이다. 무엇보다도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라는 놀람에 대해서 의아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분별하시어 결정하시는 분이므로 틀림없이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바리새인’ 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자라서?..

문득 요즈음에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되돌아본 창세기 3장의 사건들이 회상 되면서 사탄의 영악한 체계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마귀를 뜻하는 영어의 ‘devil’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diabolos’ 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바로 ‘비방자, 참소자’란 뜻이다.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속으로 떨어질 때에 사탄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또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비방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참소와 비방’이라는 영적인 무기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거짓과 의심과 불신의 누룩을 우리들 가운데 심어 놓고선 나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뜨리고 세상적인 죄악 속으로 떨어뜨릴 때가 종종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다운 믿음을 통하여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현재진행형의 삶이지, 과거완료형 또는 과거형이 아니며 십자가로 스스로의 외형을 장식하느라 그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감명을 받고 행함에는 주저주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가슴으로 느껴서 회심하고 용기있게 나 자신의 또 다른 내가 오히려 죽어서 십자가의 신비를 영원히 체험해야 하지 않겠는가?

벽난로 안의 그 뜨거운 불길들은 사람의 혀가 재빠르게 움직이듯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 우리 모두들에게...

남궁 원 집사



기도: 너무도 쉽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자이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36-37)

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피아노의 시인’ 쇼팽,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한 사람을 더 할까요? Apple Computer의 창설자 스티브 잡스...? 이들은 모두 피난민 내지 난민의 자녀입니다...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친부인 압둘과타 존 잔달리는 시리아 출신 미국 이민자입니다. 잔달리가 조국의 폭정을 피해 난민이 되지 않았다면 ‘애플’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쇼팽은 음악가로서, 위고는 문학가로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의 귀재로서 크게 인류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을 받아주는 나라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과 쇼팽과 위고와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이들을 받아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이 네명과 같이 위대하게 된 사람 아니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략)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테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편 예수님은 짧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답변합니다. “자비를 베푸자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강도 만난 자의 육신적 치료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을 본 사람입니다. 귀한 목적을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이는 인류를 위한 큰 손해이자 이는 하나님에게도 큰 손해가 끼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분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아직도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꽃을 피워야 함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일 더 치료비가 들었더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온전케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기가 쏟아부은 정정보다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안에는 인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교수형을 당한 본 회퍼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친지에게 보냈습니다. “감옥의 삶은 대강절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는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을 시도합니다. 아무런 결실도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단지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모두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바랄수밖에... 그들은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단지 밖에서만이...

이영길 목사
<2015년 9월 27일 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주님, 세계에서 고통받는 난민자들과 탈북자들,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 예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9:6)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 - 인간 세상에, 그나마 짐승들을 가두어 놓은 마굿간에서 첫울음 소리를 내고 탄생하시어서, 33년의 인생 여정을 유대땅에서 마치신 분. 그는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요, 선생이였고, 그 자신도 외로움, 멸시, 증오와 질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으나 죄 없는 몸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간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구원의 역사이다.

빌립보서2:5 -11 에는 명시되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이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갔기에 그가 지신 십자가는 결국 용서와 치유의 표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Harvard University에서 가르쳤던 Henri Nouwen 교수가 쓴 "Wounded Healer" 라는 책의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9:6에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다.

김켈리 권사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목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간절함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삼 년 전 이맘때 일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벌써 며칠째 어머니와의 통화가 썩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힘을 주시는 어머니지만, 유독 그 밝음이, 그 며칠 동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몇 번이나 반복되던 중,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싸이 방명록의 글귀를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명록에는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네가 우리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난 널 키우면서 한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너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금덩이라도 안 아까웠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하려고 했던 너에게 너무나 고맙다. 어려서부터 혼자서 자기 일을 잘해 나가니 대견하다. 좀 더 넉넉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을 텐데, 너무나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글귀가 마치 제게 하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에게 여쭙 보니 아버지는 마치 못해, 어머니가 최근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 검사를 해 봤고,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며칠 전 조직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노랗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992년 부모님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러시아 사할린을 다 같이 들어간 후, 낯선 환경과 문화적인 어려움 때문에 급속도로 몸이 약해지신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유언을 몇 번을 하시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지만, 매번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무너지지 않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메어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날 만들어 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제가 항상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원동력과, 하나님을 알게 해 준 출발점과 구심점이 없어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올 며칠의 시간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저에게는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단 한시도 저의 몸이나 맘이 딴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면, 꼭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보냈습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검사의 결과는 저의 간절함에 따라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일을 단 한시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할 사람은 저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왜 그렇게 어머니가 간절하게 절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는지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머니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후, 기적적으로 암이 아니라는 조직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간절함을 계속 유지 못하는 나약한 저를 보게 되지만, 그 일을 겪은 후 간절할 맘이 얼마나 기적을 만드는 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나태해진다고 느껴지고, 삶의 불만이 늘 때면, 그때 품었던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내 삶에 만약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처음의 그 간절함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우성 집사

.....

기도: 앞으로 감당할 삶의 무게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살아 가는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무한 의지하고, 오늘의 두려움을 내어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철들 나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홀(간사스럽고 교묘함, 속임수)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좃으라” (베드로전서 3:10 - 11)

초등학교 일학년 때 일이다.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난 애들과 장난을 즐기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오놈 제법이야 어른 같애, 철이 다 들었어’ 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난 그때 철이 몽땅 다 들었는 줄만 알았다.

요즘들어 간헐적으로 옆에서 들리는 ‘ㄴㄴㄴㄴ 철은 언제 들래’ 하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들리곤 했었다.

뒷마당에서 밤 늦게까지 불장난 하다... ㄴ, 우리집 지키기 건 석순양의 시도 때도 없이 빠지는 털 때문에 고민하다 뒷 칸에 앉아서 박박 빗질을 해 대다 ‘깽’ 하는 소리에 놀란 김권사 왈 ...ㄴ,

교회 부엌에 여집사님들께 멧적은 농담 던지다 ‘어어 거기서 스톱 ...ㄴ ㄴ ㄴ 언제나 철이 들려나 우리 서방님?’

십지어는 어느 잘 아는 분이 맛있는 국을 끓이시고 계시면서 ‘간 좀 봐 주세요’ 해서 장난스레 ‘이게 무슨 맛이지’ 얼굴을 약간 찡그린 시늉을 했었는데, 글썽 후에 들으니 그 맛 있던 국물을 다 쏟아 버리고 흐느적 거리시며 부엌을 나가시더라는 ...

장난스레 던진 농담 한 마디에, 아쉬움에 털어 놓은, 생각 없는 한숨에, 은근히 모르는 척 내 세울 것도 없으면서 내 자랑을 했던 것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누군데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에, 이젠 그 상처 훌훌 털어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어리석고 어설픈 위로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무례한, 아니 철들지 못한 말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나 하는 마음에 깊은 부끄러움이 엄습해 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이 사순절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둡고 진한 잿빛 마음을 다 스러 보련다.

이젠 철들 나이도 되지 않았나?

장양술 장로

.....

기도: 두번 생각하고 입을 여는 여유와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아멘

2016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병신년(丙申年) 2016년이 시작됐다. '2016'은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영 '20'이 '16' 즉 임마누엘 (Immanuel)을 번역하면 '하나님(1)이 우리(6)와 함께 계시다(1)' (마태복음 1:23)는 뜻, 따라서 '2016'은 '그리스도의 영(20)'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16)'는 말씀을 숫자로 표시한 것. 예수님이 '2'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늘 '1'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 (요한복음 14:28)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20)'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53, 54, 56)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20)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임마누엘링(Immanueling - 16화(化)을 밝히셨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2016”년은 크리스천의 해가 분명한데 2016년에 들면서 비기독교인 사건이 기독교인을 놀라게 한다.

한국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원미 경찰서는 지난 1월 15일 숨진 초등학교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를 아들 최군의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란다. 최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 최군을 목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데려가지 않았고,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손상시켜 냉동상태로 보관했다. 경찰은 최군의 사인, 사망시점,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1월 16일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다니... 사랑인가 증오인가? 경찰은 최씨 지인 집에서 훼손된 상태로 가방에 담겨 있는 최군의 시신을 찾았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 아들의 생명을 맘대로 빼앗은 최씨와 한씨 부부에겐 ‘2016’은 아들은 잃었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화 하는 해가 되길 기도한다.

한편, 2016년이 병신년인데 발음이 ‘병신病身’ 병든 몸과 같다 해서 읽거나 쓰는 것을 피한다. 하지만 본래의 뜻은 1) 丙: 하나님 (一)과 인자 (人) 예수님이 멀리가는 성령님(門)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형상이며 2) 申: 하늘과 땅을(口) 짝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十)을申으로 표시한 것. 이 사랑을 이 땅에 펼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人). 하여 이 사랑을 퍼는 글자를 伸: 펼 신. 인자 예수님이 우주가 넘치도록 “사랑을 채우신 그림. 이 그림을 짧게 丙申(병신)이라 표시한 것을 ‘병든 몸’과 발음이 같아서 쓰기를 피한다? 하나님 삼위께서 우주를 짝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을 퍼붓는 것을 알기 전에 “丙申 2016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사랑의 강이 흐르는 것을 모른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2016 예수님 임마누엘 사랑인 것!!

.....

신영각 집사

기도: 2016년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올해가 ‘선교의 해’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히 행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쉐마의 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저희 탁구 동우회는 지난 여름에는 VBS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Class 를 개설하였고, 7 주간의 어린이 탁구 캠프를 열면서 어린이들과 꽤 친숙해 졌고, 지난 11 월 창립기념 제 3 회 전교인 탁구대회 때 어린이들도 별도로 토너먼트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꿈이며 미래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투자되는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전반적 인성교육의 장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보여 주는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은 자녀가 자라나면서 자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신앙의 뿌리이며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보며 절망하고 있고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는 현실의 위협을 보면서 근심에 싸여 있습니다. 천정부지의 교육비와 고생활비, 젊은층의 실업을 증가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한 저출산율에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 종래의 전통적 가족개념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공동체의 가장 근간인 가족공동체도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 등을 향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 이웃도 친구도 없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 사회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실한 메마른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을 헬조선이나 지옥불반도라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심지어는 국회에서까지 회자되고 있을까요? 성공하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인의 확실한 Identity 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 성공과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실사 온다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이며 순간적이고 곧이어 더욱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신앙은 신명기 4 장 6 - 9 절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에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또 가정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나눌 때, 신앙은 그 가정을 통하여 2 대, 3 대로 전수되며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하사 배불리 먹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매 2 개월 마다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3 세대가 함께하는 “쉐마의 밤”을 가지고 어린이들로부터 상록회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쉐마의 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또한 원합니다. 가정에서 매주 드리는 말씀과 기도는 “쉐마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확장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책임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혼탁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복태 장로

.....

기도: 주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험한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 4-7)

2016년을 맞이하면서 소중한 친구에게 큐티 노트를 선물받았다. 메모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잊었던 소녀감성을 자극하는 듯한 연한 핑크색 노트의 빈 공간을 보고 마음이 설레었다. 내 마음을 읽은 듯,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나누겠다는 새해의 다짐을 지킬 수 있게 선물을 준 친구에게 더욱 고맙다. 커버에 적혀있는 ‘Love never gives up’ 는 ‘응답하라 1988’ 처럼 나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했다. 마음을 맑게 울리며 그 시절엔 잘 몰랐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 가게 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1학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퀴즈를 맞추거나 말씀을 암송하면 책받침을 선물로 주었다. 앞면에는 침대 밑에서 기도하는 아이의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가사가 적힌 반짝반짝 코팅된 것으로, 책받침을 받는 일은 어린 시절 자랑스러운 일이자, 어디서나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완소(완전 소중함) 아이템이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공책 뒤에 책받침을 대고 뽀족하게 깎은 연필로 깨끗하게 글을 쓰고 나면 기분까지 좋아지곤 했다. 또한 그 시절, 결혼식의 축가 no.1 이고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는 자주 들어서 익숙했고, 책받침을 들고 다니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기도 했다. 누군가 다루고 나서 힘들어 하고 있으면, 덩달아 속상한 마음에 슬금슬금 다가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로 시작해서 책받침 속의 노래 가사를 하나씩 이야기해주며 위로해 주기도 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성경책에 쓰여 있는 2D에서 점점 더 3D(입체적으로) 로 다가왔다. 사랑에 대해 막연했던 사춘기에도 이 말씀은 자꾸 내 마음을 뭉뚱했다. 궁금한 일은 직접 해 봐야 하니까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해 보고 싶다’ 는 꿈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기다리기도 했다. 사랑이 어느 순간 짠! 하고 생긴 거는 아니지만, 20대 꿈같던 연애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이 말씀은 더욱 ‘사랑’ 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사랑은 언제나 ...” 말씀처럼 온전히 ‘사랑’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 알고자 오래 매달렸던 만큼, 그 사랑 안에는 온유, 함께 기뻐함, 오래 참음, 기다림이 있었음과 십자가에서의 고통, 온전한 승리까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조금씩 퍼즐처럼 알아가고 있는 사랑을 그 동안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통해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물이 샤페리의 물처럼 뜨겁게 쏟아졌다.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믿고 바라셨을까. 작은 큐티 노트에 적힌 말씀을 통해 드라마처럼 어린 시절의 추억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갈급함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 하던 부분이 희미하고 답답했던 생각대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몸이 약해지고 속상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디서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4D (마음의 떨림과 진동이 전해지는)가 되어 하루하루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김희진 사모



.....

기도: 그 깊은 사랑의 원동력으로 가까운 곳부터 사랑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나누고, 함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찌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누가복음 23:32-38)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가 정호승 시인의 ‘봄 길’이라는 시입니다. 첫 부분만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순절 때면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사순절은 Lent라고 하는데 Lent의 어원은 ‘lengthening’ 곧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순절 기간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음을 모두 느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영적인 봄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일까요?

물론 영적인 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봄을 오게 하는 봄길이 되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가 길어지기에 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봄은 언제 도래할까요? 아니 영적인 봄을 오게 하는 봄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모두 봄길이 되십시오. 해를 길게 만드십시오. 부활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찾아 올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용서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봄길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봄길이 되셨습니다. 중국인 주문모 신부는 한국인들을 위한 봄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봄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용서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Fed Ex 운전자가 되어서 봄길을 타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이웃의 죄를 거두어 가지지 않으실까요? 세상은 우리들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보스톤에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봄길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영길 목사

<2015년 3월 29일 종려/고난 주일 설교문 중에서>

엘리야의 힘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열왕기상 18:1-2)

어렸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라고 하셔서 수염이 많은 나의 할아버지를 그렸다. 선생님께서 “너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많으시냐?” 하시기에 “할아버지를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 엘리야가 되었어요.” 엘리야 같은 우리 할아버지 그림은 오랫동안 교실 뒤 벽에 붙어 있었다. 그때부터 성경의 그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엘리야를 지금까지도 좋아한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만한 기도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다. 길르앗에 사는 가난하고 무식한 촌사람이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모진 훈련으로 불러내신 것이다. 나는 함경남도 백두산 천지 물이 서쪽으로 흘러 내리는 압록강 가의 첫 동네인 해산진에서 태어났다. 압록강 건너편은 장백산맥의 절벽으로 꼭막히고 동쪽과 남쪽으로 함경산맥이 구비구비 둘러싼 두메산골이다. 감사하게도 그 산골짜기에 110년 전에 노 할아버지가 중국 목당강에서 기독교를 받아 오셔서 집안과 이웃에 전도하신 것에 큰 위로가 되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석회질 땅에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맨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다니면서 머리와 수염은 제 멋대로 자라 볼품이 없는 사나이였으나 그는 발이 말보다 빠르고, 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임을, 또 자기는 선택 받은 자임을 푹푹히 인식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종들을 살살이 죽일 때, 바로 그 죄악의 본 궁인 아합궁에 들어가서 죄 값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없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겉도 없이 순종하고 믿음과 용기로 들어가서 큰소리를 지르고는, 그릇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그 얼마나 외롭고 배가 고프고 추웠을까. 보통사람 같으면 이대로 언제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한숨과 후회로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날씨는 점점 가물어 시냇물은 마르고 한심한 지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다. 내일은 어떻게 되겠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전혀 알 수 없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다.

큰일이 앞에 있을수록 내 영혼이 조용히 담대히 기도와 묵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의 의지함을 갖게 함은 엘리야에게 배우는 믿음의 순종의 자세이다.

돌이켜보면 나에게도 나름대로의 브라질이라는 그릇 시내가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집이 미국에 있다. 때때로 심심치 않게 갈멜산의 대전쟁도 있었으나 기도로 준비하고 다져야 할 것이다. 겉 없고 미련한 고집쟁이인 나에게도 승천의 약속이 있기에 85년을 하루같이 웃으며 재주 없는 기도로 우리 주님께 매달려 산다.

2015년 마지막 주의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우둔한 나에게 소망과 큰 위로가 된다. 한 알의 씨앗(말일)도 죽어 몇 십, 몇 백 배의 결실이 있듯이,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지경을 넓히도록 힘쓰며 기쁜 생활을 한다.

김현지 권사

.....

기도: 엘리야의 삶을 본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겸손, 순종, 믿음, 소망을 본받아 나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29-31)

2015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운 일들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헤쳐나온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머리로/말로 먼저 믿는 신앙인답게 세상의 일들을 처리할 때에는 나의 생각과 능력에 기대어 준비하고, 잠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그 결실을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의 준비에 상당히 만족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준비와 세운 대책으로 보면 두말 할 것 없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혼자 걱정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시간에 위로를 주셨고, 힘들고 지루한 기다림의 순간순간마다 건달 용기를 주셨으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며 놀랄 때도 함께 하시어서 평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 지도 모른 채,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정신없는 몇 개월이 지나고 2016년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시기 전에 기도로 말씀을 구하거나 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1월 구역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보며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지를 배웠습니다. 2016년에는 특별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2:29-31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한 해에 “누가복음 12:29-31”의 말씀을 가슴 안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부분은 정말 삶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 되지만 일년을 시작하며 제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김동규 집사



기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열심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전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옛적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모 살아 생전에 잘 모셔라”.

이제 저희들도 어느덧 ‘모심’을 받는 자리에 와서 돌아보니 부모님께 대한 회한과 자녀들에게 대한 감사의 교차로에 서 있음을 실감하며 지내고 있지요.

저희 부부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둘 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지요. 첫 신혼 3년을 함께 하시며 우리 첫째 아들 지형(James)을 맞아 기뻐하며 길러 주신 지형이 친할머님, 우리가 미국에 1972년에 이민 와서 정착하고 안정할 때까지 20년 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우리 두 애를 키워 주시고 돌보아 주신 아이들의, 특히 우리 딸 지원(Jane)이 외할머님... 두 분 어머니께 대한 회한과 감사가 요즘 더욱 느끼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니 우리가 살아있는지 확인도 할 겸 ‘매일’ 전화를 해라.”

그 말을 들은 후로 멀리 사는 우리 딸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아들은 우리 이웃 동네에 살기도 하지만, 역시 남자라고 마음은 깊으나 표현은 무뎛뎛하여 매일 전화하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키워셔서 우리 집 ‘큰딸’로 주신 마음씨 착한 며느리(Terry)가 아들 대신 ‘거의 매일’ 엄마에게, 요즘은 카톡으로 우리 부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마음의 전함이고, 아픔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쁨을 두 배로 늘이며, 사랑을 샘솟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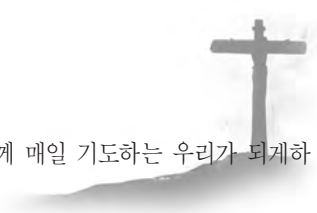
이렇게 딸과 ‘큰딸’ 된 며느리의 전화 -사랑의 메세지를 ‘매일’ 받으며, 요즘은 우리 두 어머니의 사진을 새롭게 보게 되어 “죄송해요, 어머니!”, “살아 계실때 제대로 못 해드린 것 용서해 주시지요, 어머니!!” 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를 - 우리와의 대화를, 우리의 기도를, ‘매일’ 듣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제야 절실히 실감케 됐습니다.

김계숙/김문소 장로

.....

기도: 자녀들의 사랑의 고백 ‘매일 전화’ 처럼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1542년 9월 마틴 루터의 열 세 살짜리 딸 맥덜린이 병을 앓게 되었다. 여섯 자녀 중에서 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다. 루터는 직접 간호하면서 딸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당황하고 놀란 루터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딸의 병이 완쾌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신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딸을 매우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맥덜린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딸의 침대 옆에서 그는 “맥덜린,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지?” 하고 물었다. 맥덜린은 “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루터는 가슴이 아팠다. 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럽게 울며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딸은 그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마틴 루터도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해지라고 요구한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이 주는 안락한 삶 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김용희 권사



기 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드셨을 나의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지금 내가 조용히 묵상합니다. 그 머리 둘 곳 없는 상황 속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본인의 억울함과 괴로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귀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아 더 이상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인간들의 먼, 혹은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당신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초라한 것만 같은 모습이 비록 나를 주눅 들게 할 지라도 내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따르겠다고, 평생 십자가의 길을 살며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주님의 임제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혹은 주님의 임제가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시선을 결국에는 당신이 약속하고 이루실 것들에 두고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나라로 초대가 되었을 그 때, 천국시민에게 합당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나의 마음이 스스로가 아닌 나의 하나님과 당신이 사랑하시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백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학주 교우 (청년 1부)

.....

기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 당신의 마음이 내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내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내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고인다. 나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쪽 살던 동네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성당이 하나 자리잡고 있다. 그 성당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내 방 창문에서 밤마다 그 성당을 바라보며 사춘기 시절의 감상에 젖어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이런저런 상념에 참 많이 잠겼던 것 같다. 그 성당은 그저 내게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모의고사 때문에 일찍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그 날 따라 그 성당에 너무 들어가고픈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 같은 비신자에게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은 접근하기 너무도 어려운 곳이기엔 들어가고픈 생각이 든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다. 우연히 들이간 그 성당에서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는 3층에 위치해 있던 대미사실로 정확히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다.) 우리 집안은 불교집안이었기에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었음에도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이 아프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을 참 많이도 울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성당을 다녔지만 처음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현할 수 없어 종교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뉴욕에서 어학 연수를 하던 시기에 우연히 언니를 따라 갔던 교회에서 성가대로 서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곳에서 또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성가대에서 나는 입 한 번 열어 노래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울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시 불러 주시는구나.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셨구나. 그렇게 나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세례(가톨릭에서도 세례를 받았으므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게 놀랍도록 나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순간이, 영문도 모르고 마음 아파 울어 버렸던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바로 그때의 시간이 떠오른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 불러 주셨음을 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너무도 알고 싶다. 보스턴으로 오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사야 6:8)과 함께였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딸이 되고 싶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라며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시며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항상 오래 참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피흘리심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완전한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목상한다.

반아영 교수(청년 2부)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여전히 제 안의 악함과 정욕이 많음을 봅니다. 저의 의를 위한 것들 모두 깨어지고 주님 뜻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릴리로 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0)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 갈릴리인가? 제자들은 지금 모두 예루살렘 아니면 그 주변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되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4: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공생애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마치고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난 3년간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3년간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동안 다른 것을 했으면 무엇인가는 expert가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은 이 때 대개가 20대 많아야 30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리가 없으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하여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이들 모두에게 fork를 손에 쥐게 하고 새로운 위대한 사역으로 초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the best is yet to come'의 축복을 제자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대신 갈릴리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뿐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 손에 쥐어진 fork가 우리들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 (중략)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fork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위로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The best is yet to come.”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은 한 주간의 첫 날이자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주일에 한 주간이 마침과 동시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한 주간을 마치면서 우리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교우 여러분, 주일은 우리들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주일은 우리들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이 갈릴리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매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fork를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문을 나서면서 외치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이영길 목사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 설교문 중에서>

나의 묵상

.....
* 사순절 묵상집에 기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내주신 옛 교우 장지은 교우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원고를 심기 원하시는 분은 kcbweb2@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홍보위원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로마서 6장 8~9절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53 / www.kcboston.org